

「話してみよう韓国語 2016~17」

中高生スキット部門 <先生の日>

A : 韓国人 B : 日本人

(教室で)

A : 明日は「先生の日」だね ?

B : 先生の日ってなに ?

A : えっ ! 日本にはない ? 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いる先生に感謝の気持ちを伝える日だよ !

B : そんな日があるんだ ! 明日ってことは...5 月 15 日 ?

A : うん ! だから先生に何か渡そうと思うんだけど、一緒に買いに行かない ?

B : そうだね ! 何がいいかなあ ~ ?

A : 先生の日って言ったら、やっぱりカーネーションでしょ !

B : じゃあ、お花屋さんに行こう !

A : とこで、この近くにお花さんがあったかな ?

B : (地図を見ながら...) お花さん...あった ! 学校の正門からこっちにまっすぐ行くとデパートがあるから、そこを右に曲がればいいみたいだよ !

(花屋の前で)

A : 着いた ! ...あれ ? これは何だ ? 何か貼ってあるよ ? ...売り切れだって ! ! ! !

B : どうしよう... ?

(以下自由創作)

「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2016~17」

중고생 스킷 부문 <스승의 날>

A: 한국인 B: 일본인

(교실에서)

A: 내일이 '스승의 날'이네?

B: 스승의 날이 뭐야?

A: 응? 일본에는 없어? 항상 우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야!

B: 그런 날이 있었구나! 내일이라면...5 월 15 일?

A: 응! 그래서 선생님께 뭔가 선물하려고 하는데 같이 사러 안 갈래?

B: 그래! 뭐가 좋을까?

A: 스승의 날에는 역시 카네이션이 좋겠지!

B: 그럼 꽃집에 가자!

A: 근데 이 근처에 꽃집이 있을까?

B: (지도를 보며) 꽃집이...아 여기 있다!! 학교 정문에서 이쪽으로 쪽 가면 백화점이 있고,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나오나 봐!

(꽃집 앞에서)

A: 바로 여기네! 이게 뭐지. 뭔가 붙어 있는데? 카네이션이 다 팔렸대!!!!

B: 그럼 우리 어떡하지??

(이하, 자유창작)